인 사 말

안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식품과학자들의 사회 참여와 노력이 절실한 때...

하 상 도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지난 1953년 625한국전쟁 휴전이후 60년대까지는 먹고 살기도 힘든 시기라 식품의 위생, 안전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1970년대 자립 경제와 고도성장을 통한 우리 경제의 대도약기를 거쳐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한숨 돌리며 교육과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인 1986년에 본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가 설립됐습니다.

본 학회는 안전한 식품을 갈망하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해 태동한 33년 전통의 국내 최고 권위의 식품안전 분야에 특화된 학술단체입니다. 그 동안 우리 과학자들은 식품안전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 그리고 정부 안전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해 왔으나 소비자를 등한시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생산자 ·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가 주인인 시대인데도 말입니다.

앞으로는 과학자들도 사회와 일반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2019년, 국민소득 1인당 3만불 시대입니다. 소비자들의 지적, 경제적 수준이 이미 최고 선진국 수준이고 방송, 인터넷, SNS를 통해 스스로 정보를 수집, 분석해 구매하고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식품(食品)의 '먹을 식(食)'자는 '사람 인(人) + 좋을 량(良)' 즉,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음식은 사람에게 좋게 쓰이도록 태어났지요. 음식 자체는 죄가 없는데, 사람이 나쁘게 만듭니다. 실제 우유, 고기, 밀가루, 설탕, 소금, 조미료, 식품첨가물 등이 그런 예인데, 그리 나쁜 것도 없는데도 마치 나쁜 독(毒)처럼 취급 받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고기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고기 먹는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1945년 해방 전 45세 미만에서 2013년 82세로 급격히 늘어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식품의 가치 판단 시 방송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니 절대적이라 보면 됩니다. 전문가보다도 연예인이나 얄팍한 지식의 유명인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회는 식품안전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 정책의 합리화와 더불어 사회에 참여해 소비자를 위한 잘못된 식품정보와 오해를 바로잡는 역할도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회의 성장에 헌신해 오신 임직원들과 묵묵히 뒷받침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